

2021년 11-2

KIET 경제산업동향

2021. 11

산 업 연 구 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아세안 5개국의 생산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11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일본 3분기중 전기비 -0.8%, 유로존 2.2% 성장률 기록

- 미국은 10월 실물지표 증가세와 체감지표 혼조세 등 지표상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인 가운데 인플레이 압력이 확대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관심
- 일본은 3분기중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이 동반 감소하면서 전기비 성장률도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한 반면에, 유로권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들의 고른 성장세에 힘입어 전분기에 이어 2%대 성장세
- 중국은 10월 실물지표들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실물지표들의 약세와 물가지표들의 상승세 지속 등에 대한 우려 대두
- 달러화는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의 재지명으로 통화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로 강세
- 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세와 미 달러화 강세, 글로벌 원유공급 증가 등으로 하락하고, 주요국 전략비축유 공동 방출 발표 이후에는 소폭 반등

□ 국내경기 : 3분기 실질GDP 성장률 0.3%, 9월 전산업생산 1.3% 증가

- 지난 3분기 국내 실질GDP는 수출 증가 전환에도 소비와 투자가 동반 감소하면서 전기비 성장률이 0.3%로 하락, 전년동기비 기준 4.0% 증가
 - 9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에서 전월비 감소세가 이어진 영향에도 서비스업생산이 증가 전환한 데 힘입어 3개월 만에 증가세를 회복

□ 금 융 : 10월 기업대출 확대·가계대출 둔화, 11월 중순(11.11~11.25 일) 금리 약보합 및 원/달러 상승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폭 역시 확대된 반면에,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

- 국고채(3년) 금리는 미국의 물가 급등세와 파월 연준 의장의 재연임 발표 등으로 상승하고, 한은의 금리 인상 발표(+25bp, 11.25일) 이후에는 반락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최고치 경신과 국내·외 인플레이 확산 우려 등으로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지속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감소·서비스업생산 증가

- 제조업생산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기계장비와 1차금속 등에서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치고, 자동차 등은 감소한 여파로 전년동월비 1.9% 감소
 - 제조업ICT 생산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중공업과 경공업도 다시 감소 전환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에, 운수·창고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숙박·음식점 등이 큰 폭 증가하면서 3.3%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4.0% 증가, 전월비 기준 3.4% 증가

□ 고용 : 10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4% 증가

- 10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된 반면에,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하락(2.5% → 2.4%)

□ 수출입 : 10월 수출 +24.1%, 수입 +37.7%, 무역흑자 18억 달러

-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4.1% 증가한 556억 달러, 수입은 37.7% 증가한 538억 달러로, 무역흑자 규모는 18억 달러를 기록
- 수출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제외하고 반도체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품목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대상국에 있어서도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고성장세가 지속

1. 해외경제

□ 미국 : 10월 경제지표 혼조세, 인플레이 강화로 금리 인상 시점 주목

○ 지난 10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확대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체감지표들은 여전히 부문간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상존. 인플레이 압력이 더욱 확대되면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

- 산업생산은 제조업을 비롯해 광업과 유틸리티 등의 생산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만에 전월비 증가하고, 소매판매 역시 자동차·부품과 주유소 판매 등의 증가세 등에 힘입어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신규수주의 대폭 감소 영향으로 3개월 만에 하락한 반면, 소비자 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44.3 → 147.4)와 미래 기대지수(86.7 → 91.3)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5개월 만에 상승
-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전월보다 확대(+53.1만개)되고, 실업률도 4개월 연속 하락한 데 이어, 경기선행지수가 8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0년 12월 이후 최고치(전년동월비 6.2%)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 압력이 강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에 주목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3	-3.4	6.3 (0.5)	6.7 (12.2)	2.0 (4.9)				
산업생산 (IT생산)	-0.8 (3.9)	-7.2 (7.1)	1.0 (3.2)	1.6 (3.5)	1.0 (1.0)	0.8 (0.2)	0.0 (0.6)	-1.3 (0.9)	1.6 (1.3)
내구재수주	3.5	-13.6	5.5	3.0	2.9	0.5	1.3	-0.3	-
소매판매	3.3	0.3	8.0	6.5	-0.5	-1.6	1.2	0.8	1.7
소비자물가	1.8	1.2	0.9	2.0	1.6	0.5	0.3	0.4	0.9
실업률(%)	3.7	8.1	6.2	5.9	5.1	5.4	5.2	4.8	4.6
무역수지(10억US\$)	-576.3	-676.7	-206.1	-208.4	-224.1	-70.3	-72.8	-80.9	-
ISM 제조업지수 ¹⁾	51.3	52.5	61.4	60.8	60.2	59.5	59.9	61.1	60.8
소비자신뢰지수 ²⁾	128.3	100.9	96.1	62.3	62.6	125.1	115.2	109.8	113.8
경기선행지수 ³⁾	111.5	106.1	110.6	114.4	117.10	116.4	117.2	117.3	118.3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9월 실물지표 혼조세, 3분기 성장률 -0.8%로 마이너스 전환

- 9월 생산 감소폭 확대와 소비 증가 전환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가 전월의 적자 규모를 유지하고, 경기선행지수가 7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 3분기중 소비(전기비 -1.1%)와 투자(-3.8%) 등 내수 부문이 동반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기비 성장률도 다시 마이너스 전환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0.0	-4.7	-1.1	0.4	-0.8				
광공업생산	-2.7	-10.6	2.8	1.2	-3.7	6.5	-1.5	-3.6	-5.4
민간기계수주	-0.9	-8.5	-5.3	4.6	0.7	-1.5	0.9	-2.4	0.0
소매판매	0.1	-3.5	0.4	-2.1	1.2	3.1	1.0	-4.0	2.8
소비자물가	0.5	0.0	0.5	-0.5	0.4	0.3	0.2	-0.2	0.4
실업률(%)	2.4	2.8	2.8	2.9	2.8	2.9	2.8	2.8	2.8
무역수지(10억엔)	-1,668	563	542	434	-831	379	436	-643	-624
경기선행지수 ¹⁾	93.8	88.6	99.7	103.4	101.7	104.2	104.1	101.3	99.7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10월 실물지표 보합세, 실물경기 둔화와 인플레이 우려 고조

- 지난 10월중 생산과 소비가 전월보다 증가율이 약간 높아진 반면에, 투자와 수출은 전월보다 증가율이 약간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9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 최근에 실물지표들의 둔화세와 물가지표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통화당국 관계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제기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실질GDP)	6.0	2.3	18.3	7.9	4.9				
산업생산	5.7	2.8	24.6	9.0	4.9	6.4	5.3	3.1	3.5
고정투자(누계기준)	5.4	2.9	30.3	12.6	7.3	10.3	8.9	7.3	6.1
소매판매	8.0	-3.9	34.0	14.1	5.1	8.5	2.5	4.4	4.9
소비자물가	2.9	2.5	0.0	1.1	0.8	1.0	0.8	0.7	1.5
수출(달러화기준)	0.5	3.6	48.7	30.3	24.4	19.0	25.6	28.1	27.1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9월 실물지표 동반 감소, 3분기 역내 성장률 2%대 유지

- 9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감소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 3분기 성장률이 독일(1.8%)과 프랑스(3.0%), 이탈리아(2.6%) 등 주요국들의 고른 성장세에 힘입어 2%대 유지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4	-6.5	-0.3	2.1	2.2				
산업생산	-1.4	-8.4	1.2	0.1	-0.2	0.3	1.3	-1.7	-0.2
소매판매	2.4	-1.0	-1.3	3.9	0.9	2.0	-2.2	1.0	-0.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0.3	1.1	1.8	2.8	1.9	2.2	3.0	3.4
무역수지(10억유로)	222.7	234.9	69.1	37.3	29.0	11.1	13.2	9.7	6.1
경기체감지수 ¹⁾	103.7	88.2	95.3	114.3	118.1	117.9	119.0	117.6	117.8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 & 유가 하락 후 반등

- 달러화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가 물가지표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의 재지명으로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강세 지속
- 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세와 미 달러화 강세,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공급 대책 검토, IEA의 글로벌 원유공급 증가 발표 등으로 70달러선으로 하락하고, 주요국들의 전략비축유 공동 방출 발표 이후에는 소폭 반등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25일
엔/달러	106.57	110.72	109.31	109.58	111.11	109.72	110.02	111.29	113.95	115.36
달러/유로	1.2075	1.1730	1.2020	1.2227	1.1858	1.1870	1.1809	1.1580	1.1558	1.1209
미 국채 (10년만기)	1.40	1.74	1.63	1.59	1.47	1.22	1.31	1.49	1.55	1.63
WTI유	61.5	59.2	63.6	66.3	73.5	74.0	68.5	75.0	83.6	78.4
두바이유	63.1	62.4	64.5	66.6	73.0	73.3	69.4	75.9	81.9	80.2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3분기 실질GDP 0.3% 성장, 9월 전산업생산 1.3% 증가

○ 3분기 국내 실질GDP는 수출 증가 전환에도 소비와 투자가 동반 감소하면서 전기비 성장률이 0.3%로 추가 하락, 전년동기비 기준 4.0% 증가

- 수출이 전분기(전기비 -2.0%)와 달리 증가세(1.5%)를 보인 반면에,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3분기 만에 동반 감소세(각각 -0.3%와 -2.3%)를 보이고, 건설투자 역시 전분기(-2.3%)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3.0%)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GDP성장률	2.2	-0.9*	1.9* (1.7*)	6.0* (0.8*)	4.0** (0.3**)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1	-5.0*	1.2* (1.2*)	3.7* (3.6*)	3.2** (-0.3**)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12.4* (6.1*)	12.8* (1.1*)	4.3** (-2.3**)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7	-0.4*	-1.8* (1.3*)	-1.2* (-2.3*)	-0.7** (-3.0**)	-	-	-	-
전산업생산지수	1.0	-1.2	2.7 (1.7)	7.2 (0.4)	3.9* (0.5*)	6.4 (1.6)	4.5 (-0.7)	5.9* (-0.2*)	1.4* (1.3)
광공업생산지수	0.4	-0.4	4.4 (3.4)	12.7 (-1.2)	5.0* (0.5*)	11.5 (2.3)	7.8 (0.2)	9.7* (-0.7*)	-1.8* (-0.8*)
제조업생산지수	0.5	-0.3	4.4 (3.4)	13.2 (-1.2)	5.1* (0.4*)	11.8 (2.5)	7.4 (-0.1)	10.2* (-0.4*)	-1.9* (-0.9*)
서비스업생산지수	1.4	-2.0	2.2 (0.7)	5.7 (1.7)	3.9* (0.9*)	4.9 (1.6)	4.0 (0.1)	4.2* (-0.8*)	3.3* (1.3*)
소매판매액지수	2.4	-0.2	6.4 (1.7)	4.4 (2.7)	5.1* (0.1*)	1.6 (1.4)	7.9 (-0.5)	3.8* (-0.8*)	3.7* (2.5*)
설비투자지수	-5.7	6.0	11.9 (6.9)	12.7 (0.7)	6.0* (-2.3*)	10.6 (0.2)	11.0 (2.0)	12.4* (-4.6*)	-4.5* (-1.0*)
건설기성액	-2.3	-4.1	-7.2 (-3.6)	-5.3 (-2.4)	-5.7* (-1.4*)	-5.6 (-0.7)	-8.1 (-2.0)	-0.1* (1.4*)	-8.4* (3.5*)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0	112.3	114.4	116.6	117.1*	116.8	117.0*	117.1*	117.3*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3	98.8	99.7	101.2	101.2*	101.2	101.3*	101.2*	101.2*
선행종합지수(2015=100)	114.6	119.5	124.7	127.1	128.2*	127.9	128.1*	128.2*	128.2*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1	99.6	101.6	102.5	102.4*	102.8	102.7*	102.4*	102.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지난 9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에서 전월비 감소세가 이어진 영향에도 서비스업생산이 증가 전환한 데 힘입어 3개월 만에 증가세를 회복
 - 광공업생산은 제조업에서 3개월 연속 감소세(전월비 -0.9%)가 이어지면서 전월비 0.8%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생산은 2개월 만에 증가(1.3%)
 - 소매판매는 내구재(-1.7%) 판매의 감소에도 비내구재(3.8%)와 준내구재(5.1%) 판매가 동반 증가하면서 전월비 2.5% 증가한 반면에, 설비투자 는 기계류(-0.5%)와 운송장비(-2.7%)의 동반 감소로 전월비 1.0% 감소
 - 동행종합지수는 내수출하지수와 광공업생산 등이 감소함에도 비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건설기성액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월비 0.2% 상승(8개월 연속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는 재고순환지표와 경제심리지수 등이 감소한 반면에,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보합

□ 물가 : 10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8% 상승, 전년동월비 8.9% 상승

- 10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1.4%)을 제외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1.6%)에서 하락하고, 주택·수도·전기·연료(2.2%), 음식·숙박(0.2%) 등에서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전월비 0.1% 상승(전년동월비 3.2%, 2012년 1월 이후 최고치)
- 10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전월비 -4.7%)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서비스(0.0%)도 보합세를 보인 영향에도, 공산품(1.8%)에서 상당폭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8% 상승(전년동월비 8.9%,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0.4	0.5	1.1 (1.2)	2.5 (0.5)	2.6 (0.8)	2.6 (0.1)	2.4 (-0.1)	2.6 (0.2)	2.6 (0.6)	2.5 (0.5)	3.2 (0.1)
근원물가	0.9	0.7	0.9 (0.6)	1.4 (0.6)	1.8 (0.5)	1.5 (0.3)	1.5 (0.1)	1.7 (0.1)	1.8 (0.3)	1.9 (0.3)	2.8 (0.3)
생산자물가	0.0	-0.5	2.4 (2.6)	6.4 (2.5)	7.4 (2.0)	6.6 (0.5)	6.6 (0.5)	7.4 (1.0)	7.4 (0.5)	7.6 (0.4)	8.9* (0.8*)
근원물가	0.1	-0.1	2.4 (2.0)	6.0 (2.7)	7.2 (1.8)	6.2 (0.6)	6.4 (0.5)	7.0 (0.9)	7.3 (0.5)	7.5 (0.3)	8.1* (0.6*)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0월 기업대출 확대·가계대출 둔화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폭 역시 확대
(21.9월 +7.7조원 → 21.10월 +10.3조원, 대기업 +2.3조원, 중소기업 +8.0조원)
 -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과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대 노력 등에 힘입어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
 - 중소기업 대출도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데다,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시설자금 관련 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
- 회사채 발행은 금리 변동성 확대와 전월 선발행 확대 등 영향으로 축소
(21.9월 +2.0조원 → 21.10월 +0.2조원)
- CP는 순상환 규모가 전월보다 약간 축소
(21.9월 -1.3조원 → 21.10월 -1.0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기업공개(IPO)가 줄어들면서 전월보다 감소
(21.9월 +1.8조원 → 21.10월 +1.1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10월말 잔액
	1~10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은행 원화대출	45.2	7.5	106.3	9.2	82.9	7.9	7.7	10.3	1,059.3
(대 기 업)	-0.9	1.1	24.8	1.0	6.5	0.3	0.3	2.3	178.3
(중소기업)	46.1	6.3	81.5	8.2	76.5	7.5	7.4	8.0	881.0
<개인사업자>	21.3	2.8	41.8	4.3	33.2	3.4	3.5	2.6	419.2
■회사채 순발행	17.2	3.6	14.7	1.0	17.1	-0.2	2.0	0.2	..
■CP 순발행	5.8	0.1	4.1	-1.5	6.5	-0.2	-1.3	-1.0	35.0
■주식발행	4.6	0.5	7.1	1.2	26.0	6.6	1.8	1.1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10월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줄어들고, 기타대출도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증가 규모가 전월보다 축소
(21.9월 +6.4조원 → 21.10월 +5.2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나, 집단대출 취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1.9월 +5.6조원 → 21.10월 +4.7조원)
- 기타대출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
(21.9월 +0.8조원 → 21.10월 +0.5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10월말 잔액
	1~10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은행 가계대출	46.5	7.2	80.2	10.6	69.1	6.1	6.4	5.2	1,057.9
■ 주택담보대출	35.2	4.6	55.8	6.8	52.6	5.8	5.6	4.7	774.5
■ 기타대출	11.4	2.5	24.6	3.8	16.4	0.3	0.8	0.5	282.4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1월 중순(11.11~11.25일) 금리 약보합 & 원/달러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순매수에도 미국의 물가 급등세와 파월 연준 의장의 재연임 발표, 한은 금통위 결과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한은의 금리 인상 발표(+25bp, 11.25일) 이후에 반락
(11.11일 1.91% → 11.25일 1.93%, +0.02%p)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최고치 경신(11.23일 4,115명)과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지난 10월 중순 이후 최고치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원화 약세가 현저
(11.11일 1,180.8원 → 11.25일 1,190.2원, +9.4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0				2021				
	2/4	3/4	4/4	1/4	2/4	8월	9월	10월	11.25일
국고채(3년)	0.84	0.85	0.98	1.13	1.45	1.40	1.59	2.10	1.93
회사채(3년, AA-)	2.25	2.19	2.21	2.06	1.97	1.83	2.05	2.57	2.50
CD(91일)	0.79	0.63	0.66	0.75	0.68	0.92	1.04	1.12	1.25
CP(91일)	1.51	1.11	1.09	1.00	0.97	1.12	1.18	1.24	1.48
원/달러	1,203.0	1,169.5	1,086.3	1,131.8	1,126.1	1,159.5	1,184.0	1,168.6	1,190.2
원/100엔	1,116.1	1,112.1	1,054.3	1,027.3	1,022.1	1,057.0	1,058.2	1,031.7	1,029.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증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9월중 전년동월비 -1.9%, 전월비 -0.9%

○ 제조업생산은 반도체(전년동월비 30.6%)를 제외하고 기계장비(4.0%)와 1차 금속(1.9%), 화학제품(1.7%) 등에서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치고, 자동차(-24.2%)와 섬유제품(-6.3%) 등은 감소세를 보이면서 11개월 만에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7.4%)에서 증가세가 전월(23.6%)보다 둔화되고, 중공업(-0.5%)과 경공업(-7.6%)에서도 다시 감소세로 전환

- 전월비 기준으로는 기계장비(3.6%)와 기타운송장비(5.2%) 등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1.6%)를 비롯해 자동차(-9.8%), 섬유제품(-1.6%), 화학제품(-0.7%) 등에서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3개월 연속 감소세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4.8)는 금속가공과 전자부품 등에서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와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 다수 주력 업종에서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월비 0.5% 상승, 전월비 기준으로는 0.1%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3.2%로 전월보다 1.1%p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3분기중 출하 증가 폭이 축소(11.5% → 2.7%,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되고, 재고가 증가세로 전환(-4.8% → 3.1%)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로 전월과 달리 0.6%p 하락

□ 서비스업생산 : 9월중 전년동월비 +3.3%, 전월비 +1.3%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전년동월비 0.2%)와 전문·과학·기술서비스(0.2%) 등에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운수·창고(7.5%), 정보통신(5.6%)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숙박·음식점(11.2%) 등이 큰 폭 증가하면서 3.3%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도소매(0.7%)가 소폭 증가하고, 운수·창고(4.5%)와 숙박·음식점(10.9%) 등에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데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3.5%) 등에서 증가세가 확대된 데 힘입어 2개월 만에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4.0%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3.4%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9년)	2019	2020	2021						
				1/4	2/4	3/4*	7월	8월*	9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6.7	106.3	109.8	113.7	111.7	115.8	109.3	110.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4.4	12.7	5.0	7.8	9.7	-1.8	-0.8
제조업 (원지수)	9,484.5	106.6	106.3	109.1	114.4	112.1	115.9	109.4	110.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4.4	13.2	5.1	7.4	10.2	-1.9	-0.9
섬 유	135.0	-5.9	-10.5	-4.5	25.0	5.1	12.6	10.4	-6.3	-1.6
화 학	883.8	-1.3	-3.0	2.8	15.7	7.5	11.6	9.4	1.7	-0.7
철 강	454.3	-2.2	-6.3	-1.9	13.3	12.0	19.3	14.7	2.8	0.5
반도체	1,285.6	11.7	22.7	21.9	27.2	33.9	34.7	36.8	30.6	-1.6
컴퓨터, 주변장치	31.3	-8.0	-7.9	-3.2	8.8	-7.6	3.4	-2.4	-22.6	-8.4
통신, 방송장비	131.5	-2.8	-11.3	28.7	41.7	19.3	16.0	28.6	13.6	-4.1
의료, 정밀, 광학	218.0	-11.0	3.9	17.0	31.7	16.4	24.6	17.4	7.9	3.6
기계, 장비	819.2	-5.9	3.6	9.4	18.4	7.6	8.4	10.6	4.0	3.6
자동차	981.6	-0.5	-10.0	11.2	22.5	-8.6	-3.4	6.2	-24.2	-9.8
조 선	206.3	17.6	8.6	-15.6	-17.6	-22.7	-21.3	-22.1	-24.5	6.5
- 중 공 업	-	0.6	0.6	5.5	14.4	6.5	9.3	11.5	-0.5	-1.2
- 경 공 업	-	-0.6	-4.0	-0.3	7.4	-1.5	-0.6	4.4	-7.6	0.3
- 제조업ICT	-	4.8	11.9	14.0	19.9	21.0	22.2	23.6	17.4	2.0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8.4	106.2	105.9	110.8	110.0	111.0	108.5	110.4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2.0	2.2	5.7	3.9	4.0	4.2	3.3	1.3
도소매	211.3	-0.4	-2.6	3.1	5.2	3.6	5.5	5.3	0.2	0.7
운수및창고	90.3	0.0	-14.2	-2.4	11.0	7.0	6.3	7.4	7.5	4.5
숙박및음식점	61.6	-1.0	-18.5	-13.1	1.5	-1.5	-8.0	-5.3	11.2	10.9
정보통신	79.9	3.6	1.5	2.0	3.9	6.9	7.3	7.7	5.6	0.0
금융및보험	140.9	1.7	14.0	15.0	9.7	6.3	7.9	6.4	4.5	-0.6
부동산	31.8	0.5	5.5	-2.6	5.7	0.4	-3.9	4.1	1.3	-1.5
전문·과학및기술	71.0	1.4	0.1	2.1	4.2	0.2	-2.1	2.7	0.2	3.5
사업시설관리 등	47.7	2.3	-9.9	-3.8	5.6	3.0	4.3	2.3	2.4	0.7
교 육	106.0	-0.4	-4.7	0.2	3.0	1.6	2.3	0.8	1.6	0.0
보건및사회복지	94.3	8.1	1.4	0.8	3.1	4.5	4.9	4.5	4.3	-0.1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0.8	-32.6	-18.0	20.6	7.6	1.6	6.4	15.5	11.2
협회·수리및개인	32.1	-1.6	-8.2	-1.8	0.3	-0.6	1.6	-2.6	-0.6	4.9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0.4	3.3	0.5	6.1	3.4	9.8	5.8	-5.1	-3.4
- ICT서비스업	-	3.5	4.9	4.3	4.4	6.4	8.1	7.2	4.0	3.4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10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2.4% 증가

- 10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가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하락(2.5% → 2.4%)
 -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전월보다 더욱 축소(-0.8% → -0.3%)
 - 농림·어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전월보다 소폭 낮아지고(1.4% → 1.3%),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약간 둔화(3.3% → 3.0%)
 -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소폭 하락(2.7% → 2.5%)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감소율도 전월보다 약간 더 하락(-1.5% → -1.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에서는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11.6% → 12.5%)를 비롯해서 교육서비스(5.6% → 6.1%)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5.1% → 5.4%) 등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에도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0.1% → -2.7%)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3.8% → 1.4%)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4.3% → 3.9%)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2%로 2개월 연속 상승세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 산 업	27,123	26,904	26,369	27,467	27,645	27,637	27,648	27,603	27,683	27,741
전년동기비	1.1	-0.8	-1.4	2.3	2.1	2.2	2.0	1.9	2.5	2.4
농림·어업	4.1	3.6	-0.2	0.2	1.5	1.0	0.7	2.4	1.4	1.3
제 조 업	-1.8	-1.2	-0.6	0.1	-0.8	-0.2	0.1	-1.7	-0.8	-0.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7	2.9	2.8	2.7	2.5	2.6	3.3	3.0
건 설 업	-0.7	-0.2	1.7	7.0	4.4	7.0	4.6	6.1	2.7	2.5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0	-5.3	-6.9	-2.4	-2.6	-2.7	-3.5	-2.7	-1.5	-1.7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1.8	5.2	6.9	5.8	6.2	6.3	8.3	9.0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5	0.9	-0.4	4.3	4.1	3.9	4.2	3.7	4.3	3.9
실업률 (계절조정, %)	3.8	4.0	4.4	3.7	3.0	3.7	3.3	2.8	3.0	3.2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0월 수출 24.1% 증가, 수입 37.7% 증가, 무역수지 흑자 18억 달러

○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4.1% 증가한 556억 달러, 수입은 37.7% 증가한 53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제외하고 반도체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품목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대상국에 있어서도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고성장세가 지속

- 수입도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과 수출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1차산품 및 중간재 위주의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74.6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66.2% 상승하고, 도입물량이 3.3%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은 60.7% 증가한 약 58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수출	5,422 (-10.4)	5,128 (-5.4)	1,464 (12.5)	1,567 (42.1)	1,646 (26.5)	548 (39.7)	555 (29.7)	532 (34.7)	559 (16.9)	556 (24.1)
수입	5,033 (-6.0)	4,676 (-7.1)	1,365 (12.3)	1,491 (37.6)	1,569 (37.5)	504 (40.7)	537 (38.2)	516 (44.0)	516 (31.0)	538 (37.7)
무역수지	389	452	99	76	77	44	18	16	43	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15대 품목중 자동차·자동차부품 제외한 13개 품목 수출 동반 증가

○ 반도체 : 디램 고정가격이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에,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계절적 성수기로 모바일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파운드리 업계의 가격 인상 검토 등 업황 호조세가 이어지며 16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완전하게 정상화되지 못한 데다, 국내 공장들의 라인 설비 공사까지 겹치면서 최대 수출국인 미국 등지를 중심으로 수출이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
- **자동차부품**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현지 공장들의 가동률도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미국·EU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2개월 연속 감소
- **선박류** : 물동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선박 인도가 일부 지연된 이후, 올해는 인도 및 통관이 정상화되면서 수출이 다시 증가 전환
- **디스플레이** : 국내 LCD 생산 감축에 따른 출하량 감소에도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는 OLED TV 시장의 확대와 OLED를 탑재한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연이은 출시 등에 힘입어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국내 기업들의 신규 폴더블폰이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데다, 해외 신규 모델에 투입되는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히 對중국 수출이 대폭 성장하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철광석 가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석탄가격 강세로 철강재 수출단가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다, 건설·자동차·기계 등 전방산업 수요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세
- **섬유** : 최대 수출시장인 동남아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고 있으며,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서 아세안·중국 등 지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도 2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석유제품** : 산유국들의 감산 완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의 허리케인 피해로 석유 증산 여력이 제한적인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의 수출단가도 전년대비 두 배 상승하면서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화학** : 건설 등 전방산업들의 경기 회복으로 합성수지·합성고무 수요가 호조세를 보이고, 중국의 전력난으로 석유화학 생산이 감소한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도 큰 폭 오르면서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

- **일반기계** : NC선반·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 주문이 큰 폭 증가하고, 세계 주요국들이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으로의 건설기계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비한 주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EU·중국 등지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수출도 증가
- **컴퓨터** : 노트북·PC 등 비대면 수요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나,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SSD 탑재 수요 증가와 글로벌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도 8개월 연속 증가세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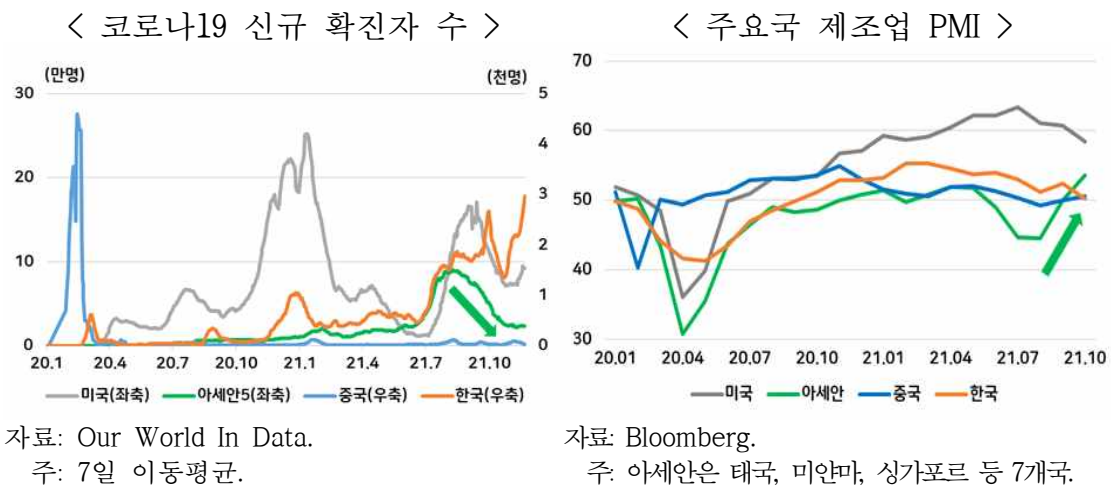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동차	5.3	-13.1	31.4	74.8	6.5	62.4	12.3	16.8	-6.1	-4.7
자동차부품	-2.5	-17.3	5.6	123.2	14.9	108.0	34.9	22.1	-5.1	-1.2
선박류	-5.2	-2.0	28.3	11.9	-1.4	41.3	10.2	38.9	-40.4	6.4
일반기계	-1.9	-8.9	-1.4	21.2	15.8	21.2	18.2	23.4	7.8	12.7
철 강	-8.6	-14.5	7.5	50.4	45.2	51.6	41.5	53.4	41.6	48.5
석유화학	-14.8	-16.4	26.5	80.3	64.0	66.9	60.2	81.6	52.2	68.8
석유제품	-12.2	-40.6	-16.6	112.6	71.4	83.7	75.7	54.5	84.3	144.2
섬 유	-8.0	-13.3	-8.3	46.0	9.9	36.4	17.4	19.0	-3.7	21.9
가 전	-3.8	0.7	16.1	66.5	11.7	47.5	29.7	12.3	-4.1	13.8
무선통신기기	-17.6	-6.4	21.5	38.5	25.7	3.4	5.0	62.0	19.6	15.5
컴퓨터	-20.6	57.2	2.8	8.9	34.0	16.5	26.4	26.1	49.4	52.7
반도체	-25.9	5.6	14.0	29.7	36.3	34.4	39.4	42.6	28.2	28.8
디스플레이	-17.0	-12.2	16.3	36.0	25.2	28.2	38.0	23.7	17.3	5.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록	아세안 5개국의 생산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	---------------------------------------

한국은행(2021.11.5일)

- 2021년 3분기중 아세안 5개국은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강력한 봉쇄조치가 시행되었고, 이들 국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등에서 생산차질 발생
 - * 아세안 5개국 :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아세안 5개국의 생산차질은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점검해 볼 필요



□ 아세안 5개국의 최근 경제상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차질로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수출입도 둔화
 - 베트남의 산업생산과 수출 증가율이 2021년 8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9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비 -5.5%와 -0.5%를 기록하면서 둔화세가 지속
- 소비도 지난 2021년 6월 이후 이동·영업제한 등과 같은 고강도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지를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감소
 - 베트남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여파로 2021년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비 -6.2%를 기록(서비스업 성장률 -9.3%)

□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세안 5개국의 위상

- 아세안 5개국은 글로벌 중간재 수출시장에서 6.7%(2020년 현재)를 차지하는 가운데 아세안 5개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일본(13.2%)과 중국(12.6%), 한국(9.0%) 등의 순서로 높았고, 특히 2010년대 들어 주요국 모두 베트남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크게 상승(중국 3.8%, 한국 3.3%, 일본 2.5%)

- 글로벌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아세안 5개국은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의존도는 일본(13.2%)과 중국(12.6%), 한국(9.0%) 등의 순서를 보이고, 특히 對베트남 수출의존도 상승이 현저
-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는 아세안 5개국 전체로 보면 2010년 이후에 큰 변화가 없으나,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는 GVC 참여도가 상승

□ 아세안 5개국 생산차질의 파급효과

- 아세안 5개국의 제조업 생산이 2021년 3분기중 7% 정도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연간 GDP를 약 0.02~0.06%를 낮출 것으로 추정
-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 영향이 여타 주요국들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데다, 무역의존도 역시 높기 때문
 - * 일본 ▲0.01~▲0.02, 중국 ▲0.005~▲0.02, 독일·미국 ▲0.003~▲0.01(▲는 마이너스)
- **(전방효과)** 중간재 공급차질로 인한 품목별 영향을 보면, 한국·중국은 전자·광학기기, 일본·독일·미국은 운송장비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
- **(후방효과)** 중간재 수요차질로 인한 영향을 보면, 한국·미국은 전자·광학기기, 일본·중국은 1차금속제품, 독일은 화학제품에서 타격이 우려

〈 주요국에 대한 전방, 후방효과의 품목별 순위 〉

	전방효과			후방효과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한국	전자·광학기기	운송장비	1차금속제품	전자·광학기기	1차금속제품	화학제품
중국	전자·광학기기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1차금속제품	전자·광학기기	화학제품
일본	운송장비	전자·광학기기	1차금속제품	1차금속제품	전자·광학기기	화학제품
독일	운송장비	전자·광학기기	기계·장비	화학제품	전자·광학기기	1차금속제품
미국	운송장비	전자·광학기기	화학제품	전자·광학기기	화학제품	1차금속제품

자료: ADB MRIO, 한은 자체시산.

주: 2020년 제조업 품목별 부가가치 감소액 기준.

□ 종합 평가

- 2021년 3분기중 아세안 5개국의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아직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 하지만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백신접종률이 높지 않아 동절기 코로나19가 크게 재확산되면 생산차질 등 부정적 영향이 재차 확대될 우려 상존
- 아세안 지역의 생산차질이 여타 글로벌 공급병목 사태와 맞물려 글로벌 물가압력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1.29)	(11.30)	(12.1)	(12.2)	(12.3)
 10월 소매판매(잠)  11월 경제체감지수	 10월 산업생산(잠)  10월 실업률  11월 소비자물가(예)  11월 소비자신뢰지수  10월 산업활동동향	 11월 ISM 제조업지수  11월 수출입통계	 10월 실업률  11월 소비자물가  21.3분기 실질GDP (잠정치)	 10월 소매판매  11월 ISM 비제조업지수  11월 고용보고서
(12.6)	(12.7)	(12.8)	(12.9)	(12.10)
	 11월 수출입통계  10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  21.3분기 실질GDP (확정치)  10월 무역수지	 21.3분기 실질GDP (수정치)	 11월 소비자물가	 11월 소비자물가
(12.13)	(12.14)	(12.15)	(12.16)	(12.17)
 10월 기계수주	 10월 산업생산(수)  10월 산업생산  연준 FOMC(12.15일)	 11월 산업생산  11월 소매판매  11월 고정투자  10월 소매판매(수)  11월 소매판매  11월 고용동향	 11월 무역수지(잠)  BOJ 통화정책회의  10월 수출입통계  ECB 통화정책회의  11월 산업생산	 11월 소비자물가(수)
(12.20)	(12.21)	(12.22)	(12.23)	(12.24)
 11월 경기선행지수	 11월 생산자물가	 21.3분기 실질GDP (확정치)	 10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11월 내구재수주(잠)  11월 개인소비	 11월 소비자물가  11월 무역수지(수)